

『적도』의 구조와 이데올로기

황 국 명*

目 次

- | | |
|-----------------|--------------------|
| 1. 들머리 | 3. 『적도』의 이데올로기적 내용 |
| 2. 삼각관계와 행위의 구조 | (1) 半봉건적 부르주아의 이념 |
| (1) 남성관계의 우회로 | (2) 정치의 윤리적 환원 |
| (2) 타협의 행위구조 | 4. 맺음말 |

1. 들머리

빙허 현진건의 작품에 관한 연구자의 관심은 단편에서 장편으로, 수법에서 내용과 작가의식 쪽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나 평가는 매우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¹⁾ 특히 장편 『적도』에 대해서는 거의 논쟁적인 성격의 엇갈린 평가가 주어지고 있다. 긍정론은 『적도』가 애정의 삼각관계라는 전술적인 위장수법으로 일제에 저항하고 새로운 세계의 실현이라는 민족적 과업에 참여한다고 평가한다.²⁾ 비판론은 『적도』의 통속성, 현상 이면의 실재를 드러내지

* 인제대 國語國文學科 教授

- 1) 그동안의 연구사에 대한 검토는 이주형, <현진건문학의 연구사적 비판> 신동욱 편, 현진건의 소설과 그 시대인식(새문사, 1981)에 정리되어 있다.
- 2) 한상무, <현진건연구>(강원대 연구논문 6집, 1972)<저항의 정신과 위장의 방법>(강원대 연구논문 8집, 1974) 임형택, <신문학운동과 민족현실의 발견>(『창작과 비평』 1973; 봄호), 조동일, <‘적도’의 작품구조와 사회의식>, 우리 문학과와의 만남(기린원, 1988),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9), p. 262. 신동욱, 『우리 이야기문학의 아름다움』(한국연구원, 1981), p. 194. 현길언, 현진건소설연구(이우출판사, 1988) 등이 있다.

못하고 민족해방을 뒷받침할 현실을 발견하지 못한 피상적 관찰, 애정문제에의 치중, 현실문제와 조화되지 못한 허약한 양면의식 등을 결합으로 지적한다.³⁾

『적도』에 대한 이와 같은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작가에게 투철한 현실인식과 민족해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학에 관한 관심의 방향이 각 연구자마다 다른 것은 아니다. 이런 관심은 문학을 하나의 전략, 즉 삶을 위해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한다.⁴⁾ 집단이나 개인의 삶을 위한 전략인 한, 문학도 목적 달성을 위해 최상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작가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으며, 실제 의도를 감추고 다른 무엇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이 작품에 반영되기 때문에 작품의 표면적 의미를 뒤집어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뒤집어 읽기도 문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입장에서, 본고는 첫째, 『적도』⁵⁾의 작중인물이 맺는 삼각관계 및 주인공 행위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고 둘째, 그런 특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삼각관계와 행위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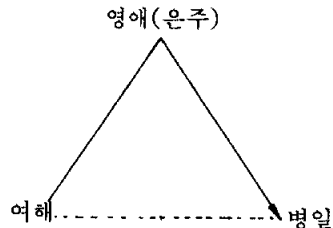
『적도』의 주요인물은 박병일, 원석호, 김여해, 김상열 등의 남성과 홍영애,

- 3) 정한숙, <양면의식의 허약성>, 현대한국작가론(고대 출판부, 1981, 3판), 김종하 <병허의 사회인식에 대한 반성>, 한국현대소설연구(국어국문학논문선10, 김열규의 편, 민중서관, 1977), <현진건 장편소설에 대하여> (부산대 문리과대학 논문 19집, 1980), 최원식, 민족문학의 논리(창작과 비평사, 1982), pp. 91-93. 이보영, <식민지적 조건의 극복(3)>, 식민지시대문학론(필그림, 1984), 전영태,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한계>, 구인환 외,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삼지원, 1989) 등이 있다.
- 4) 반 퍼어슨은 “일군의 사람들이 그 환경에 응답하는 방식”이라는 뜻에서 문화를 하나의 전략으로 본다. C.A. 반 퍼어슨, 문화의 전략(오영환 역, 범문사, 1980), pp. 20-26 참조. 버어크에서 예술작품은 적과 동지를 구별하고 적을 방어하거나 안녕과 관련된 약속, 경고, 위로, 복수, 예고, 훈계, 계획을 위한 전략적 행위이다. 현실 반영은 곧 사태에 대한 기민한 파악,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 미래 결과에 관한 전망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주의도 삶을 위한 전략적 장치로 이해된다. The Philosophy of Literary Form(Univ. of California Press, 1973), pp. 296-298, 301-304 참조.
- 5) 『적도』는 1933. 12월부터 1934. 6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뒤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본고는 신한국문학전집 5권(어문각, 1979, 중판)을 텍스트로 하고 인용은 본문에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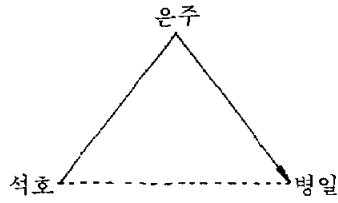
박은주, 명화 등 여성이다. 그래서 이들 사이의 삼각관계가 『적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삼각관계는 바로 인간관계의 하나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현실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삼각관계는 역동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삼각관계는 내적인 긴장과 갈등을 포함하면서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 두 인물이 겨루는 상황일 뿐 아니라 가변적인 현실의 일부이기 때문에, 남녀의 삼각관계는 역동성을 떨 수밖에 없다. 먼저 이들 인물의 역동적인 삼각관계를 분석하고, 대부분의 인물과 직접 간접의 관계를 맺는 여해의 행위구조를 밝혀본다.

(1) 남성관계의 우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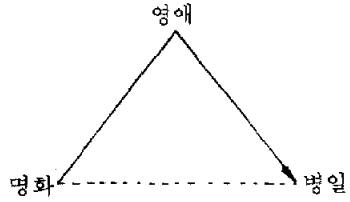
1) 여해-영애-병일의 관계 : 여해가 출옥하는 것이 『적도』의 첫 장면이다. 그는 영애의 혼전 애인으로 영애와 병일의 결혼 첫날밤에 칼을 들고 침입하였다가 5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러한 여해를 병일은 그들 부부를 위해 희생된 은인이라 칭찬하면서 여해의 장래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석호가 날카롭게 꿰뚫어 본 것처럼, 병일의 제안은 매우 계산된 것이다. 즉 그는 대자본가의 명예와 위신 때문에 혼전의 여해와 영애의 관계를 감추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병일은 영애의 여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모르는 척하고 오히려 영애를 통해 여해에게 관용을 베풀으로써 여해의 의지를 지배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체포되어 취조를 받는 중에도 그와 영애 사이의 ‘거룩한 비밀’(p. 66)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그가 영애에게 보낸 편지를 이용하여 병일이 자신을 독립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잠입한 밀사로 모해한 비밀을 탐지한다는 점에서 여해는 병일의 위식을 지배하고 있다. 더구나 ‘원수’의 ‘적진’ 병일의 집에서 그의 여동생 은주를 유린함으로써 여해는 사태의 진상 혹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병일에게 치명타를 가한다. 그러니까 병일은 그도 모르는 사이에 여해에게 인식상으로 압도되는 것이다.



2) 원석호-은주-병일의 관계 : 원석호는 ‘슬기’와 ‘괴’로 허명보다는 실리를 추구한다. 그의 은주에 대한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누저만 재산가의 외동딸로 외누이로” 지극한 사랑을 받는 다는 것이며, 그녀의 “미모와 재주는 이 점에 대면 부속품이요 허접스레기”이다.(p. 81) 그는 흠아비가 된 뒤 그러한 은주를 미래의 아내로 꿈꾸지만 자신이 “병일의 한낱 사용인에 지니지 않”음을 기민하게 깨닫고 그의 욕망을 감춘다. 그래서 은주의 비밀, 즉 처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은주를 여해에게 보내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은주를 “천 계집”으로 격하시켜 손쉽게 차지함으로써 거기에 수반되는 병일의 재물을 얻고자 하는 계책이다. 그는 은주에 대한 앎을 소유함으로써 병일의 의식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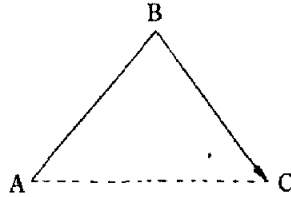


3) 명화-영애-병일의 관계 : 기생 명화는 특정한 “방문의 목적”(p. 57)을 지니고 임원한 여해를 문병한다. 이 목적은 여해를 통해 영애의 비밀을 탐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병일을 제압함으로써 병일의 재산을 얻어내는 것이다. 비밀을 알아낸 뒤 꾸밈과 거짓으로 영애를 모해하여 명화는 병일을 그녀의 의지에 굴복시킨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제 손아귀에 달리게 된 것”이다.(p. 104) 그런데 그녀에게는 숨겨둔 애인 곧 김상열이 있으므로 여해는 그녀의 애정대상이 아니다. 또 여해가 명화에게 전적으로 이용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는 명화의 접근의도가 영애에 대한 질투나 “병일을 농락하는 한 수단”(p. 154)임을 알고 있고 명화 역시 상열과의 “아름답고 거룩한 비밀”을 여해에게 털어 놓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삼각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는 타인을 속이거나 타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주체이다. C에 대한 원한, 적의, 야망을 감추고 B를 이용하여 간접적 우회적으로 C를 인식상 압도하거나 재물을 획득하고자 한다. 여해, 명화, 석호는 이 A에 속한다.



둘째, B는 행위나 욕망의 주체가 아니라 A와 C의 관계를 매개하는 미끼로서 주로 여성이다. B에 해당하는 인물은 영애와 은주이다.

셋째, C는 속임과 지배를 당하는 대상이다. C는 A와 B의 관계나 비밀에 대해 무지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A에게 농락당한다. 병일은 C에 속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적도』의 남녀 삼각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적도』의 남녀관계는 여성을 매개로 하여 주로 남자동성간의 갈등과 대립을 보인다. 따라서 삼각관계를 단순히 치정관계로 보거나 남녀의 애정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⁶⁾

둘째, 비밀의 탐지 곧 타인에 대한 앎(지식)의 획득은 타인에 대한 지배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그 지배는 물리적 지배와 다르다. 명화와 같은 여성이 우월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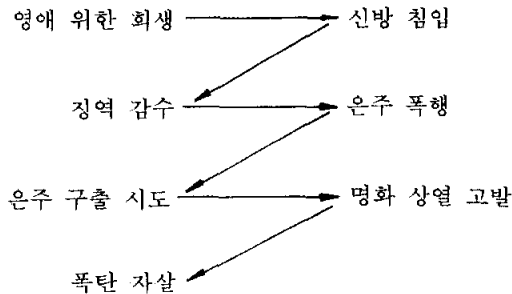
셋째, 삼각관계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다름을 우회, 간접화시킴으로써 직접적인 대결에서 초래될 수 있는 상호 물리적 파괴의 위험을 방지한다.

(2) 타협의 행위구조

1) 상실과 획득의 원리: 영애가 파산에 직면한 집안을 위해 병일과 결혼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해는 “나 하나만 불행하면 그만”(p. 69)이라 하고 결

6) 조동일 교수는 일곱 가지의 삼각관계를 분석해 내고, 이중 홍영애-박병일-김여해, 원석호-김여해-김은주, 박병일-명화-김상열의 삼각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우리 문학과의 만남, pp. 288-294. 그러나 본고처럼 삼각관계를 역동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 뒤의 두 관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혼을 권유하면서 봉천으로 도피한다. 그러다 결혼식날 신방에 칼을 들고 침입하며, 이로 말미암아 취조를 받을 때 영애를 위해 그녀와의 관계를 숨기고 징역을 감수한다. 출옥후 영애의 시누이인 은주를 성폭행하고 그로 인해 무서운 환영에 고통을 겪다가 자살을 기도한 은주를 구출하기 위해 한강에 뛰어든다. 구조된 뒤 여해는 명화와 상열을 질투하여 경찰에 고발하려다가 상열을 대신하여 모종의 임무를 수행중 폭탄을 깨물어 자살한다. 이와 같은 여해의 행각을 순서대로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로 볼 때 여해의 행위는 희생(피해)-가해(범죄)-희생(피해)라는 원점 회귀의 구조 혹은 범죄(가해)에서 희생으로의 이행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겠다. 그런데 여해의 희생은 단순한 상실 혹은 피해가 아니다.

내 생명보다 더한 무엇을 잃어버린 듯도 하였소. 그대신 세상에도 거룩한 것, 세상에도 깨끗한 무엇을 얻은 듯도 하였소. (...중략...) 도리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해내었다-속마음으로 기뻐하였소. 용서 못할 것을 용서한 내 자신이 비장하고 돋보이었소. (p. 64)

따라서 여해는 연인을 잃은 비참한 피해자가 됨으로써 동시에 장하고 거룩한 희생자라는 명예를 얻는다. 또 은주를 구출하고자 한 행위도 자기를 버림으로써 “용감한 청년”이라는 명예를 얻으며, 이 명예는 남의 눈을 무시하게 하여 감탄(p. 145)을 자아낸다. 또 상열을 고발하는 대신 폭사함으로써 「사랑은 준다」는 소재목처럼, 여해는 고귀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해의 희생은 ‘상실-획득’의 원리에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2) 욕망의 괴물성 : 앞서 살핀 것처럼, 여해는 구원자(희생자, 피해자)이

면서 동시에 가해자(범죄자)이다. 순진한 희생자이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라는 이중성은 그의 욕망의 괴물스러움⁷⁾을 입증한다. 괴물이란 자신에게 이질적이거나 낯설다는 느낌의 경험이다.⁸⁾ 여해는 자신의 열정적인 행위가 낯설다는 느낌에 지배된다. 그래서 그는 신방 침입 행위를 “차마 못할” “악착한 일”(p. 64)이라 하고, “아귀의 형상”(p. 22)으로 은주를 폭행한 “짐승과 같은 제 정열”, “악마와 같은 제 성욕”(p. 127)에 강렬한 공포를 체험한다. 또 명화를 얻기 위해 상열을 고발하는 것이 “축축하고 더러운 심사”에서 나온 “가장 비열한 수단 가장 천천한 방법”(p. 154)임을 인정한다.

이처럼 두렵고 혐오스러운 괴물의 이미지로 부각될 때, 여해의 열정은 현실의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하고 불순한 것이 된다.⁹⁾ 그가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것은 괴물스런 욕망에 대한 사회의 통제를 강력히 암시한다.

과음과 과식과 파로! 맹장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세 가지를 하루 동안에 모조리 범해 놓았으니 아무리 튼튼한 그의 몸이지만 견디어 나지 못하였고, 지나친 자극과 흥분이 꼬리를 맞물고 뒷덜미를 짚은 까닭에 머리로 얼떨떨했던 것 같다.(p. 49)

주어진 범위나 한계를 넘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과도한 행위에는 맹장염과 같은 흥분의 징벌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해의 열정적 행위는 그가 “튼튼한 육체가 걱정”(p. 153)이라 한 것처럼, 한계 위반의 죄를 범한 것이다. 만약 열정의 괴물스러움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열정을 포기하고 자기를

7) 레빈은 괴물을 합리-불합리, 피해자-가해자, 순진-사악 등 양가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G. Levine, *The Realistic Imagination*(Univ. of Chicago Press, 1981), pp. 25-27 참조.

8) 이질성은 신성, 비생산적 소비에서 결과하는 것, 성적 교접의 찌꺼기, 매혹이나 혐오 등 강력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자, 폭력, 과도함, 망상이나 광기, 일상적 삶과 어울리지 않는 생활 등을 뜻한다. G. Bataille, *Visions of Excess*(Univ. of Minnesota Press, 1985), pp. 140-143 참조.

9) 괴물에 대한 태도는 다양하다. 괴물을 의문스러운 異界의 존재로 볼 수도 있고, 동화처럼 이상한 세계의 일상적 인물로 대할 수도 있으며, 일상적 세계의 기이한 인물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의 경우, 괴물은 일상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비정상으로서 불순하고 위협스러운 대상이 된다. 여해는 이 경우에 속한다. N. Carroll, <The Nature of Horror>(Jour.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1987, 가을호), pp. 52-54 참조.

희생하였다면, 여해의 희생은 자멸적인 무모함에 불과했을 것이다. 따라서 범죄(가해) 자에서 희생적 구원자로 전환되는 것을 그가 사회의 불의나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없다. 그 전환은 “내가 한 짓이 죄가 되리라고는 몰랐던”(p. 66) 무지의 상태에서 그의 욕망을 불법시하는 사회현실의 힘을 깨닫은 결과라 하겠다.¹⁰⁾

결국 여해는 육체적 열정에서 정신적 명예로, 사악에서 순진으로, 무지에서 각성으로, 현실위협에서 현실보존으로, 가해자에서 구원자로 전환한다. 이 양면성을 인간의 본래적 조건으로 드러내었다면, 『적도』는 인간존재에 대한 거시적인 풍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도』에서 이들 중 한편은 대결적 아이러니처럼¹¹⁾ 불의, 혼란, 비진실로 배척되고 있다. 따라서 여해의 양면성, 가해자(범죄자)에서 피해자(구원자)로의 이행은 사회적 일탈, 위반의 욕망(열정)과 그것을 범죄시하는 경찰(치안, 감시, 감옥)의 원리 사이에서 이루어진 타협의 결과라 하겠다. 즉 여해의 행위구조는 타협의 구조이다.

3. 『적도』의 이데올로기적 내용

앞서 남녀의 삼각관계와 여해의 행위구조를 분석하여 여성을 대가로 하여 남자동성간의 우회적인 대결, 걱정으로부터 위축되는 타협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것이 『적도』만의 특유한 것일 수 없다. 그것들이 특정 시대의 현실, 특정 집단의 이념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해명할 때, 비로소 『적도』에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여해가 희생자로 전환되는 계기는 무엇이며, 그 전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10) 레빈은 환멸 체험을 자신의 한계에 대한 각성,, 사회의 불의에 관한 각성, 개인의 야망에 대한 사회의 힘에 관한 각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G. Levine, 같은 책, pp. 31-33 참고.

11) 이는 겉뜻과 속뜻이 위계적으로 대립하는 불변적 stable 아이러니에 가깝고 모호성 ambiguity과는 다르다. W.C. Booth, A Rhetoric of Irony(Univ. of Chicago Press, 1974), p. 40.

(1) 半봉건적 부르주아의 이념

먼저 여해가 자기 욕망의 괴물스러움을 깨닫고 희생자로 전환되는 계기를 살펴보자. 그 중요한 계기는 여성에 의해 조성된다. 이들 여성은 공통적으로 무기력한 수동성, 희생적인 순종심을 보인다. 영애는 집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순종적인 여인이다. “여자의 한평생에 가장 귀하고 중한” “〈처녀〉의 구슬”(p. 108)을 잃었다 하여 은주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한다. 명화는 거칠고 때로는 부도덕하게도 보이지만 “백년낭군”을 향한 순색시의 부끄러운 순정을 지닌다.

애인의 얼굴은, 그를 칠팔 년이나 다시 어리게 만들어놓은 것이었다. 난잡하고 능란한 기생의 탈을 벗겨버리고, 순색시의 순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것이다. (p. 136)

명화는 꾸밈과 거짓의 가면을 벗고 소녀같은 순진성을 회복한다. 기생의 탈을 쓰고 현실을 견디는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에는 그녀가 순색시의 순정을 바친 남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적도』의 여성들은 소극적인 순종, 헌신적인 인내, 무기력한 수동성을 지닌다. 이런 특질들은 첫째, 여성을 외부의 힘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되는 선량하고 순진무구한 인물로 만들고 둘째, 이런 특질에 의해 전환되는 여해도 순수성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면 자신의 전향으로써 여해는 무엇에 기여하는가? 괴물로서 여해가 파괴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정세계에 속하며, 보존하려는 것도 가정에 속하는 것이다. 두 오빠의 미두 빛과 난봉 빛으로 몰락의 위기에 처한 영애의 집안은 “여러 백 석하던 살림”(p. 67)이었다. 두 오빠의 행각과 살림의 규모로 보아 여해가 파괴하고 싶지 않은 영애의 가정을 궁핍한 빈민의 그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영애의 혼전 비밀을 지킨 것도 영애가 “멋뎠한 부부”(p. 16)가 되었다고 믿는 대부르주아 가정을 위하게 된다. 그래서 영애는 흥물스럽게 변한 여해의 모습에서 “불길한 조짐”(p. 24)과 첫날밤에 겪었던 공포와 불안을 떠올리는 것이다.

폭행 당하기 전의 은주 역시 대자본가의 외누이로 귀하게 생활했으며 동

경유학을 하여 성악가로서의 ‘명성’을 얻어 “여왕으로 군림”할(p. 108) 꿈을 지닌다. 이를 “소박한 일상인의 꿈”¹²⁾이라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녀의 희망은 단순한 생존 이상으로 유복한 가정에 정착할 가능성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명화는 재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상열과의 가정생활을 꿈꾼다. 기생의 거짓된 삶을 혐오한다 해도 그녀가 외적인 보상, 즉 돈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¹³⁾ 그녀에게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토대이다. 또 감추어둔 애인과의 가정을 꿈꾼다는 것은 프라이버시, 즉 비밀스러운 사생활, 개인의 사적 자유에 대한 욕망과 다르지 않다. 이런 프라이버시가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매력적이긴 하나 나날의 구복이 문제되는 빈민의 생존 목적과는 엄격히 분리된다. 따라서 그녀의 삶이 개인주의, 사유재산의 확산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¹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해는 가정세계를 위해 희생되는, 탁월한 순수성의 소유자로 보인다. 많은 논자들이 작중인물들의 이런 순수 순결성 혹은 그것의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¹⁵⁾, 정작 그러한 정체(identity)의 사회적 토대¹⁶⁾는 검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적도』의 문맥에서 수동적인 여성의 희생이나 인내, 순종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보수적인 가치체계에 지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자질은 그런 자질에 가치를 부여하는 남성을

12) 현길언, 같은 책, p. 123.

13) 하기 싫은 일을 노예문화에서는 강요와 위협 때문에 하고, 신분문화에서는 종교적 동기에서 행하며, 자본주의하에서는 돈 때문에 한다고 말해진다. K. Burke, *A Grammar of Motives*(Univ. of California Press, 1969), pp. 92-93 참조.

14) M. Berger, *Real and Imagined World*(Harvard Univ. Press, 1977), pp. 41-42. 프라이버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구증가, 노동분할, 개인주의의 발생, 사유재산의 확산 등이 지적된다.

15) 은주의 행동은 불가항력적인 정조 상실조차 개인의 도덕적 파산으로 간주하는 낡은 도덕의 억압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조동일 교수의 지적처럼 은주의 자살 시도를 맹목적인 ‘항거’로 보기는 주저된다. 우리 문학과와의 만남, p. 303 참조. 또 현길언 교수처럼 그 시도를 “순수한 처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책, p. 127. ‘순수’라는 가치는 억압을 감추는 장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 버어크에 의하면, 개인의 정체 형성은 사회집단과 관련된다. K. Burke, *The Philosophy of Literary Form*, p. 306.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여해의 전향은 남성중심적인 봉건적 이념과 관련 된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여해가 보호하려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중류 이상의 가정임을 알겠다. 그가 “죽음으로서 용서”(p. 130, 154)를 구하는 무사무욕, 자기희생의 태도를 보일 때, 그는 맹목적인 열정의 위험에 놓인 부르주아중산계급의 가정을 긍정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과 같은 근거로 볼 때, 『적도』에는 남성 중심의 새로운 가치와 낡은 가치가 상호보충적으로 작용함이 분명하다. 여해의 욕망 위축과 전환은 가부장제의 보수적인 도덕과 부르주아의 가치체계, 즉 돈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 형식인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의 개인주의에 이중적으로 의존한 결과이다.¹⁷⁾ 남자동성사이의 우회적인 갈등을 보인 삼각관계도 이런 이중적인 가치체계의 산물이라 하겠다. 거짓과 속임, 오해와 의심을 조성하는 삼각인간관계는 타인의 시선에서 보호된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된다. 여성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성의 간접적 관련을 매개하는 미끼인 삼각관계도 이런 이념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적도』의 남성들은 여성을 매개물로 삼아 남성중심적인 사회를 유지해 가는 동업자처럼 보인다.¹⁸⁾ 이런 상호보완적인 이중의 가치체계가 식민지의 조건이라면¹⁹⁾, 『적도』는 이 이중적인 사회성격을 반영하고 그 현실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하겠다.

17) 이와 같은 의존성은 빙허의 단편소설에서도 확인된다. 김중하 교수에 의하면, 빙허의 단편은 기존 도덕관념과 새로운 사상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현실과 조화하고 타협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김중하, <빙허의 단편소설연구> (부산대석사학위논문 2권 1호, 1974), pp. 89-90, 129 참조.

18) 육체의 정절을 버리는 댓가로 돈을 추구할 때, 명화의 육체는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교환이 가능한 상품이 된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를 상품화하여 재물축적에 성공 하더라도 그녀는 남성의 경제기구에 종속된다. 왜냐하면 남성에게 가치롭게 여겨 지는 것은 그녀의 육체적 봉사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남성의 문화질서를 대 변한다. R. Wiegman, <Economies of the Body>(Criticism, 1989, 겨울호), pp. 40-41 참조.

19) 일제는 자기이익의 보호 육성을 위해 독점자본과 봉건적 요소를 병존시켜 서로를 강화하는 식으로 식민지 생산관계를 재편하였다고 말해진다. 안병직, <한국에 침입한 일제자본의 성격>, 안병직, 신용하 외, 변혁시대의 한국사, (동명사, 1980, 4 판), pp. 191-193 참조. 박천승, <동학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지향>, 한국민족주의론Ⅲ (창작과 비평사, 1985), p. 34. 오미일 편, 식민지시대 사회성격과 농업문제 (풀빛, 1991), pp. 18-26 참조.

(2) 정치의 윤리적 환원

그러면 『적도』가 은밀하게 행사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무엇인가?

『적도』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문은 상열이 차지하는 의의, 여해와 상열의 관계이다. 김상열은 연구자들에게 김여해의 무분별한 열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적 인물로 평가되었다. “아녀자의 사랑에 만 매어 있을 늑중한 장부가 아니었”(p. 89)던 상열은 사람이란 “제 한 몸의 행복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p. 139)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다. 그는 개인의 이익보다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정체를 규정하는 것은 자기소모적인 의무일 것이다. 그런데 “내 사명은 내 사명이지, 형의 사명은 아니오.”(p. 154)라고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여해에게 위임한다. 의무에 한계지워진 인물이면서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그의 정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즉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²⁰⁾

여기서 그가 여해의 열정을 지도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즉 여해의 자발적인 반응과 김상열의 현실인식 사이에 일치점이 있느냐는 것이다. 빙허가 여해의 죽음을 통해 두 인물을 하나의 연대 속에 결속시키고자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런 결속이 정치적으로 일관된 신념에 의해 매개되는 것은 아니다. 여해의 죽음을 알리는 신문 기사를 읽고 상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열정에 지글지글 타는 인물, 한 시라도 열정의 대상이 없고는 견디지 못하는 인물, 그런 종류의 사람은 태양에 비기면, 인생의 적도선이라 할까……(p.

156)

여기서 상열은 여해를 욕망대상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인물, 그래서 끊임 없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 이동하는 열정의 소유자로 이해한다. 즉 여해의 열정은 넘치는 욕망을 과시적으로 발산하는 소모적인 힘으로 인식된 것이다. 그런데 상열은 단 하나만의 목표를 지향한다. 그의 확고한 신념은 미래의 결과를 염두에 둔 축적의 힘이라 하겠다. 따라서 상열을 지도자적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도, 그의 신념과 여해의 죽음이 상호관련을 얻었다고는 할 수

20) 그래서 상열은 혁명가라기보다 감상적인 인물로 비판된다. 최원식, 같은 책, p. 93 참조.

없다. 특히 상열을 대신해 죽음으로써 여해는 정치적인 것을 윤리적인 것으로 전환시킨다. 그의 자폭은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므로 가능한 한 악을 덜 범하겠다는 윤리적 행동이다. 정치적 죽음의 가능성이 있는 상열의 목숨까지 구제됨으로써 『적도』는 윤리가 정치를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치의 윤리적 전환은 정치적 실천으로 야기될 일련의 위협을 방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²¹⁾ 즉 상열로 대표되는 정치적 저항은 여해의 전향처럼 타협의 구조에 가까운 전략적 장치로 생각된다. 이 장치의 효과는 이중적이다. 하나는 주어진 제약에 순응함으로써 세계내에서의 존립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런 현실순응에 대해 예상되는 비난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일종의 방어전략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효과는 『적도』가 행사하는 보수적 기능의 하나이다. 이로써 독자는 정치를 도덕으로 전환하는 방식, 즉 결코 위험하지 않은 간접화의 방식으로 정치를 체험하면서, 그러나 정치적인 한계를 격파할 때의 공포에 결코 직면하지 않으면서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따르면, 여해의 죽음은 마침내 적대세력을 분쇄하는 외적

21) 작품평가에 있어 이차 자료는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적도』의 구조를 분석한 조동일 교수는 삼각관계는 위장의 수법으로 적극적 항거를 암시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는 내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빙허의 사회의식에 의해 창안되었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빙허의 잡문 〈이러쿵 저러쿵〉에서 “예술은 예술적 가치만 있으면 물론 훌륭한 예술이다. 그러나 이 내용적 가치가 문예작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나는 주장 안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증거로서 인용한다. 그러나 인용된 부분은 빙허가 일본인 작가 국지관의 〈문예작품의 내용적 가치〉라는 평론의 대의를 밝힌 것이다. 예술(기교)보다 생활(내용)을 우위에 둔 국지관의 글에 대해 빙허 “이 논지를 고대로 승인하기에는 주저”되지만 실생활을 무시하는 당시의 작가들에게 반성의 계기가 된다고 보았고, “금을 모래 속에서 차자내었다고, 모래가 모조리 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器具만 있고 技術만 있고보면 深山窮谷에 바위를 쫓고 금을 캐낸”도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개벽 45호, 1924. 2월호, pp. 120-121) 그러니까 빙허는 생활의 가치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생활로부터 선택된 재료를 금과 같이 가치롭게 만들 “오묘한 솜씨”를 더 중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용의 심각성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도덕이 정치적 공격을 방어하는 것처럼, 공교로운 기법은 심각한 내용으로 초래될 수도 있을 불안울 방어, 희석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용에 근거하여 빙허의 문학사상을 知情意 일체론에 입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이하게 생각된다. 조동일, 우리 문학과 의 만남, pp. 310-312 참조. 한국문학사상사시론(지식산업사, 1979, 재판), pp. 361-364 참조.

폭력일 수 없다. 그것은 가해자로서의 부정요소를 정화하여 자기변화, 자기 갱신을 꾀하는 내적 폭력이다.²²⁾ 괴물스러운 욕망의 불법성에 대한 무지로부터 깨달음으로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적도』는 환멸의 구조로 된 교양소설²³⁾에 가깝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여해의 환멸 대상은 무책임한 열정이다. 즉 그의 중심적대자는 현실이나 타인이 아니라 그를 유혹하는, 두렵고 환멸스러운 욕망이다. 그의 전향의 이면에는 은주가 “사는 세상하고는 아주 다른 벽 세상의 지긋지긋한 사실”(p. 21) 즉 “감방살이”(p. 11)가 존재한다. 감옥은 사회질서의 중요한 상징이다. 따라서 여해의 경우 무지에서 각성으로의 이행은 그 사회질서가 개인에게 타락한 영향을 행사하는 불구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²⁴⁾ 격정극의 후회하는 죄인처럼,²⁵⁾ 그의 죽음은 기존 세계의 적법성을 과시한다. 이처럼 주인공이 감방에서 사회로 복귀하고, 죽음으로써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은 『적도』를 역설적으로 반영웅적 사실주의소설 혹은 보수적인 멜러드라마로 만든다.²⁶⁾

22) 그래서 『적도』에 대한 이해는 여해의 성격변이나 아이덴티티의 형성과정에 근거함이 타당하다고 지적될 수 있다. 김중하, <현진진 장편소설에 대하여>, p. 24.

23) 소설은 작중인물이 순진한 상태에서 때묻은 상태로, 무지에서 성숙한 현실인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그린 환멸의 구조를 지닌다고 말해진다. M. Z. Shroder, <아이러니와 소설>, 현대소설의 이론(최상규 역, 대방출판사, 1983), pp. 34-36 참조.

24) 환멸 각성으로의 이행에 대해 상반된 두 반응이 가능하다. 긍정적일 것으로 이해될 때, 인물은 미망으로부터 진실에 이르면서 자신의 무책임한 상상이나 야망에 환멸을 느끼고 사회의 책임을 수락한다. 이런 인물은 독일의 보수적인 교양소설의 특징이다. 환멸이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는 개인이 도덕적 순수로부터 타락과 미망에 이르는 것으로, 그는 결함있는 사회질서 때문에 자신의 열정을 포기함으로써 불구화된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 교양소설의 특징으로 말해진다. M. Hirsch, <The Novel of Formation as Genre> (Genre, 1979, 가을호), pp. 300-309 참조.

25) 브룩스에 의하면 서구의 초기 격정극에서 남자주인공은 흔히 후회하는 죄인, 공감할 수 있는 악당, 범죄를 저지르는 주인공이었다고 한다. The Melodramatic Imagination(Yale Univ. Press, 1976), p. 87.

26) 영웅이 대개 일상세계로부터 ‘분리’되어 모험을 겪은 후 다시 현실로 ‘귀환’한다. 여해는 감방에서 현실로 ‘귀환’하였다가 ‘분리’(죽음)된다는 의미에서 영웅설화 모티프의 현대적 변용이라 할 수 있다. 김중하, <현진진 문학에의 비판적 접근>, 신동욱 편, 같은 책, p. II-59. 레빈은 의미있게 구조화된 스토리내에 무질서를 포함, 봉쇄, 억압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기여하는 전략이 사실주의라 하고, 사회질서의 요구에 일치하지 않는 개인의 야망을 분쇄하는 것은 각성(환멸)의 형식에 잠재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환멸소설은 회극형식이라는 것이다. G. Levine, 같은 책, pp. 15-17, 74-80 참조. 그런데 멜러드라마도 개인의 과도한 열정을 발산하도록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적도』는 변화의 요체가 사회변혁이 아니라 자기이해에 있음을 암시한다. 자기이해는 개인의 활력을 억압하는 봉건적 이념과 개인의 책임능력, 자기개선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에 의해 요구된다. 이들 이데올로기는 노골적으로 억압적인 권력(예를 들어 감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한계를 넘을 경우 언제라도 응징할 것을 암시한다. 개인주의의 이상으로 거칠고 불만스러운 개인을 달래고, 헌신적인 여성을 통해 야만스러운 열정의 인간을 길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적도』는 전략적으로 자기교양에 관심을 집중하게 만드는 보수적 작용을 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적도』의 보수적 전략은 두 방향으로 이데올로기적 억압을 행사한다. 첫째, 그것은 궁핍한 것은 사회계층이 아니라 도덕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빈민계층을 억압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날의 생존을 위해 사회적 책임보다 욕망 충족을 추구하는 빈민에 대해 양심의 거리낌없이 냉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적도』에 민족현실이 구체화되지 못한 함은 이런 억압과 무관하지 않다.²⁷⁾

둘째, 사회질서를 의문시할 정치적 지향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는다. 세계에 대한 도덕적 해석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나 민족 모순이 사회표층에 부각되지 않도록 억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병호나 원석호도 민족이나 계급의 적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타도되어야 할 현실의 적이라기보다 경멸받아 마땅한 부르주아 속물이라는 것이다. “전지전능의 신”(p.96)처럼 군림하는 더러운 돈에 대한 혐오(pp. 95, 99)는 퇴폐적인 부르주아 속물근성에 대한 윤리적 비판이지 계급적 현실을 환기한 것일 수 없다. 오히려 그 혐오 자

하면서 동시에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미덕을 보존하거나 개인의 야망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성을 지낸다. J. Kucich, *Excess & Restraint*(Univ. of Georgia Press, 1981), p. 49.

- 27) 예를 들어 여해의 감옥이야기에는 노름을 하다 순사를 죽인 농민의 일화가 있는데, 그 농민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장난이라고 변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도』의 연재가 끝난 뒤이지만, 1935. 12. 30일자 동아일보가 함흥형무소에 수감된 1,400여명중 사상범이 378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일화에는 빈민에 대한 빙허의 비정적 거리가 느껴진다. 빈민에 대한 빙허의 냉정한 관조에 대해 김종하, <빙허의 괴부문학 소고> (국어국문학 11집,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74), pp. 148-150, 황국명, <빙허 현진건론>, 노재찬 외, 한국현대작가작품론(제일문화사, 1990), 336-339 참조.

체는 돈을 신격화²⁸⁾ 함으로써 돈에 대한 은밀한 관심을 감출 수 있다.²⁹⁾ 예를 들어 타인의 약점이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석호와 명화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석호의 욕망은 “악마의 그림자”(p. 83)를 감추고 있는 소부르주아의 탐욕으로 부정된다. 이는 그가 명화와 같은 자기정화적인 순수함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병일은 주변의 모든 인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바보처럼 보이므로, 그는 회화적으로 관용될 가능성이 크다. 여해의 가해자적 면모를 외부의 박병호나 원석호와 다를 바 없는, 여해 내부의 “괴물스러운 짝패”³⁰⁾라 하더라도, 그의 희생자적 특질이 기존 가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한계를 돌파할 수 없다. 『적도』는 이런 부르주아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 재물에 지배되는 속악한 삶을 도덕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음을 설득시킨다. 바로 이런 감춤과 설득이 『적도』의 이데올로기적 힘이다.

28) 돈은 행동에 부여하는 중심이지만 우리는 돈을 싫어하는 것처럼 말하여 이 사실을 감춘다고 한다. 따라서 종교에 있어 우리가 신을 훑쳐보거나 공공연히 이름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돈에 대한 혐오는 돈의 신격화와 다름 없다는 것이다. K. Burke, *A Grammar of Motives*, p. 116 참조.

29) 동아일보를 나온 후 병허는 37년 혹은 40년에 미두로 인해 재산을 탕진 한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편, 같은 책, p. 11-15. 현길언, 같은 책, pp. 292. 미두가 일제의 자본주의적 수탈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병허가 민족자본에 대한 일제의 위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다.

30) 지라르는 괴물스러운은 주체의 안과 밖에서 목격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식민지나 억압의 시대에 외부의 그 모델은 흔히 지배권력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R. Girard, *Violence and the Sacred* (Johns Hopkins Univ. Press, 1977), pp. 164-165. 이런 의미에서 대부르주아 병일은 억압되어야 할 여해의 그림자(무의식)가 의인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박홍배, <현진건의 장편소설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982), p. 15. 그러나 그림자 현상을 억압하여 여해가 순수성을 획득할 때 그것이 부르주아의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을 정신분석학적인 해석은 간과하기 쉽다. 이런 해석은 여해의 순수성을 비역사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여해의 죽음을 민족해방을 위한 저항으로 본 기왕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

4. 맺음말

본고는 『적도』의 삼각관계 및 주동인물의 행동에 작용하는 가치체계를 규명하고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도』의 삼각관계는 여성을 매개로 한 남성간의 우회적 갈등을 나타낸다.

둘째, 주인공 여해의 행위는 가해(범죄)에서 희생(구원)으로 이행하는 타협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셋째, 이와 같은 삼각관계와 행위는 보수적인 봉건적 가치와 부르주아 개인주의에 이중적으로 의존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적도』는 半봉건적 부르주아의 이념을 반영하고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탓으로 『적도』는 전략적으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함축한다. 그 작용의 하나는 정치적 실천을 윤리적 행위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보다 개인의 새신에 변화의 핵심을 두도록 만드는 것이다.